

겨울 배추 최대 주산지 해남 재배면적 급감

전국 겨울 배추 생산량 3% 감소...1월 출하량 16% 줄 듯

12월 가격 평년보다 43% ↑ ...4일 김장 비용 33만1356원

전남이 전체의 98%를 차지하는 겨울(월동)배추의 올해 생산량이 전년보다 3%, 평년보다 8%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겨울배추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해남지역 배추 재배면적은 지난해보다 19% 급감했다.

5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이 발표한 농업관측정보 12월호에 따르면 올해 겨울배추 생산량은 27만 2760t으로, 지난해(28만197t)보다 2.7%(-7437t)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평년(29만5565t)에 비해서는 7.7%(-2만2805t) 줄어든 양이다.

올해 겨울배추는 빠르면 이달 상·중순부터 출하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12월 하순 출하가 시작했다.

만생종 비율이 높은 진도는 내년 1월 본격 출하

한다.

겨울배추 생산량이 감소한 건 재배면적이 전년보다 줄었기 때문이다. 겨울배추 면적은 지난해 4217ha에서 3690ha로, 12.5% 감소했다. 평년(3991ha)에 비해서는 7.5% 줄어든 면적이다.

배추 최대 주산지 가운데 하나인 해남의 경우 올해 가을·겨울배추 재배면적이 3355.6ha로, 전년(4139.1ha)보다 18.9% 감소했다. 해남 황산면 면적 감소율이 30.8%(1232.1ha→852.2ha)로 가장 높았고, 산이면 21.9%(1298.7ha→1013.9ha), 마산면 18.0%(190.1ha→155.9ha), 문내면 7.2%(773.0ha→717.6ha), 화원면 4.5%(645.2ha→616.0ha) 등 순이었다.

이로써 이달 가을·겨울배추 전국 출하량은 전년

■해남 가을·겨울배추 재배면적

(11월 상순 기준, 단위:ha, %)

지역	2020년	2021년	증감률
산이면	1298.7	1013.9	-21.9
황산면	1232.1	852.2	-30.8
문내면	773	717.6	-7.2
화원면	645.2	616	-4.5
마산면	190.1	155.9	-18
합계	4139.1	3355.6	-18.9

〈자료: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보다 25.6%나 감소할 전망이다. 이달 중순까지 출하가 마무리되는 가을배추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7.8% 출하량이 줄고, 재배면적이 줄어든 겨울배추는 전년보다 5.4%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1월 겨울배추 출하량은 전년보다 16.3%, 평년보다 9.4% 감소할 양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배추 가격은 이달에 다소 떨어지겠지만, 평년보

다 43%가량 높을 것으로 관측됐다.

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은 이달 배추 도매가격은 상품 기준으로 10kg당 8500원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10kg당 9820원이었던 지난해보다 낮은 평년보다는 여전히 43.1% 높은 수준이다.

또 4인 가족 기준(배추 20포기·무 10개) 김장 비용은 이달 2일 기준 33만1356원으로 추산돼 지난해 같은 날보다 8.5%(2만5991원) 높았다.

한편 농업 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올해 겨울배추 계약재배 사업량은 채소가격안정제 2만4898t과 출하안정제 4842t 등 2만9740t으로, 지난해(3만3097t)보다 10.1%(-3357t)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재배면적은 채소가격안정제 299ha와 출하안정제 59ha 등 358ha로, 전년(379ha)보다 5.5%(-21ha) 감소했다. 올해 전남지역에 배정된 배추 채소가격안정제 사업 예산은 17억7400만원으로, 현재 사업계획을 심의하고 있다. 겨울배추 계약재배는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이어진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농수산식품유통공사·완도군 저탄소 식생활 문화 확산 협약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완도군은 지난 1일 나주 aT 본사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저탄소 식생활 문화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5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춘진 aT 사장과 신우철 완도군수가 참여했다. 두 기관은 ▲저탄소 식생활 캠페인 '코리아 그린푸드 데이' 확산 등 ESG 가치 실현 ▲지역 농수산식품의 국내외 판로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완도군은 우리나라 전복·다시마의 70% 이상을 생산하는 수산물 생산중심지로, 세계 최대인 31개 국가가 전복으로 친환경 수산물 국제 인증인 ASC를 획득하는 등 한국의 건강할 수산물 수출에 앞장서고 있다.

'코리아 그린푸드 데이'는 먹거리의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농장에서 식탁까지 넷 제로(탄소중립)'를 실천하는 저탄소 식생활 캠페인이다. aT는 지난 9월 선풍식을 갖춘 기업, 학교, 지자체 등 대국민 확산에 나서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

영광 안마도 물 부족 숙원 해결...하루 100t 용수 공급

지하수저류지 설치 완료

수자원공사 1년 간 시범운영

영광 안마도 지하수저류지 설치가 완료되며 200여 주민들이 하루 100t 이상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게 됐다.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분부는 지난 3일 환경부, 영광군과 안마도 지하수저류지 설치사업 준공간담회를 열고 5일 밝혔다.

이번 설치사업은 4년에 걸쳐 진행됐으며, 환경부와 수자원공사가 앞으로 1년 동안 시설물을 시범운영하게 된다. 수자원공사는 사업효과를 검증하고 운영지침을 작성한 뒤 내년 12월 영광군에 운영권을 인계할 예정이다.

지하수저류지는 지하대수층에 인공 차수벽을 설치하여 지하수를 저장·확보하는 친환경적 수자원 기술이다.



한국수자원공사와 환경부, 영광군이 지난 3일 '영광 안마도 지하수저류지 설치사업' 간담회를 열고 4년에 걸친 준공을 기념하고 있다. <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 제공>

이번 설치는 인천 대이작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진행됐다. 국비 90%, 지방비 10% 비율로 총 132억원이 투입됐다. 길이 412m, 심도 8~46m

규모 지하차수벽과 관측정·취수정 각 5개소, 도수관로(547m) 등이 갖춰졌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올해의 청년농업인상' 전남 2명 수상

김상욱·유주완 대표 선정

올해 농협중앙회가 선발하는 '함께하는 올해의 청년농업인상' 수상자에 전남 청년농업인 2명이 이름을 올렸다.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최근 농협중앙회에서 열린 2021년 함께하는 올해의 청년농업인상 시상식에서 순천원예농협 소속 김상욱(39)씨와 서영암농협 소속 유주완(35)씨가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김상욱씨는 지난 2104년부터 '김상욱농장'을 운영하며 자신만의 농업을 꾸리고 있다. 지난 2003

년부터는 부모님의 농업을 도우며 실력을 다졌다.

김씨는 매일 영농일지를 작성하면서 계획농업을 실천하고 있다. 양상추·수박연구회에서 활동하며 선진영농기술 도입과 전파에 힘쓰고 있다.

그는 현재 순천원예농협 40세 이하 조합원 중 출하실적 1위를 달성하고 있다.

'대원농장'을 운영하는 유주완 대표는 강진농업고등학교와 한국농수산대학 낙농학을 전공한 준비된 인재다.

그는 학산월출영농조합법인 대표로 활동하며 서영암농협 친환경쌀 계약재배 단지장도 맡고 있



김상욱 대표

유주완 대표

다. 농기계가 없는 고�령 농업인을 위해 농작업을 대신 해주고, 농민에게는 절임배추 가공사업을 벌이며 지역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청년조합원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청년조합원 권익 신장에 힘쓰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

농어촌공사, 농촌융복합 인증제품 체험 행사

한화호텔앤드리조트와 협업

한국농어촌공사는 한화호텔앤드리조트와 협업해 '농촌융복합 인증제품 체험' 행사를 이달 한 달 동안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농촌융복합인증 인증제품은 농업인 또는 농촌기업이 농촌지역에서 생산되는 국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만든 제품을 말한다.

이번 행사는 농촌융복합 인증제품 판로 확대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이다. 객실 가동률 90% 이상인 전국 한화호텔앤드리조트 객실·카페 이용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객실 이용객은 미용제품과 키즈카페 및 유아 동반 객실 이용객에게는 유아용 간식을 체험할 수 있

도록 했다.

이용객들로부터 체험 소감을 받은 뒤 선착순 500명에게는 1만원 상당 커피 상품권을 줄 예정이다.

공사는 이번 행사가 농촌융복합인증 우수제품에 대한 이미지 고급화와 함께 전국에 지점을 보유한 리조트와 지역 인증제품을 결합한 판로 확대가 농성을 시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인식 사장은 "앞으로도 농촌융복합 인증제품 매출 증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통해 소비자들에게는 좋은 품질의 제품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농가에는 판로확대를 통한 소득증대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농협 광주본부, 내년 감사 30% 비대면 추진 목표 농협 광주지역본부(본부장 강형구)와 농협 광주검사국(국장 유정기)은 최근 광산구 우산동 지역본부에서 '2021년도 하반기 감사업무협의회'를 열고 광주 14개 지역농협 감사팀장과 올해 감사결과와 내년 감사방향 등을 논의했다. 광주검사국은 오는 2025년 디지털 감사 전면실시를 목표로 내년 사업량 30%를 비대면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농협 광주본부 제공>

포도에서 만납시다
진혜진 시집

“타자들을 향한 따스한 말건넬의 아득한 순간”
“실존적 비애나 결핍의 장막”을 자신만의 언어로 승화

진혜진 시인 첫 시집

포도에서 만납시다

추천사

“진혜진의 첫 시집은 '사랑'의 불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사랑'을 상상하고 실천하고 꿈으로 각인해가는 불가항력의 과정을 담은 격정적 고백록이다. 그 세계는 때때로 실존적 비애나 결핍의 악몽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시인은 그 장막을 뚫고 자신만의 시적 진실을 하염없이 노래해간다.”

- 유성호 문학평론가·현양대 국문과 교수

진혜진 시인 프로필

2016년 경남신문, 광주일보 신춘문예, 시산맥 등단 | 시집 '포도에서 만납시다' | 2021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크문화창작기금 수혜 | 제11회 시산맥작품상 수상 | 도서출판 상상인 대표